

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인가?(2)

- 읽을 말씀 마 5:10-12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박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과 박해받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팔복에 대한 총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5) 박해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나 박해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5:10). 그렇다면 박해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화 즉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뿐 아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살후1:6-7)**”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지언정 절대 박해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시기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배후에는 항상 시기심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12사도와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시기심이 박해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단시비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외에도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① 박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 교리적이 되지 말라!

성경에 의하면 유대교 안에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막 7:6-8). 사람의 계명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의 교리 중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의 계명에 세뇌된 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을 도리어 박해하곤 합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딤후 3:15-17).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가장 심한 것도, 교회 안에서 가장 왜곡되고 무너진 것도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가 박해를 받은 이유도 구원론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구원론을 바르게 깨닫고, 타협하지 않고 전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사냥꾼들과 비양심적인 교단들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단' 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든 교리적이라면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에 있어 교리적이 되지 말고 반드시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② 박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 종교적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이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성경적인 은사증지론의 영향을 받아 성령계로부터 오는 계시(조명적 계시)와 은사와 기적들을 터부시하기 때문입니다. 잔 오스틴은 「초자연적인 흐름을 따르는 법」에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사방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 종교의 영은 모든 성령의 역사를 비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박해를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응당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원수는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종교적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핍박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박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종교적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겁도 없이 귀신의 역사요, 신비주의요, 이단이라고 떠들어대면 성령훼방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훼방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이 되어 박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으며(마 5:11-12),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 중의 하나가 박해입니다(눅 14:25-27). 박해는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요 15:18-19). 존 라일은 “세상의 미움은...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만족스러운 증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됴됨이와 처신은 다른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3:19-20),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살아 있는 교회와 성도들 즉 진짜들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절대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②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니다. 그렇다면 그 상은 얼마나 클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히 11:24-26). 오늘날 말로 하면 미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됩니다(계 20:4-5). 이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③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 혹은 랍비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없지만, 바울이 기록한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사들은 거의 핍박을 받지 않지만, 사도들은 지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토록 지독한 박해를 받는 이유는 토대적인 사도(성경기록에 쓰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뒤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토대적인 사도로서 그들이 전한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그들이 했던 성령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지만 사탄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팔복의 총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에서 완전한 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통’ 그리고 ‘의에 주리고’ 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약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가듯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벽한 팔복의 사람을 목표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 나눔과 적용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참 신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대면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애쓰고 힘썼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